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 No. 435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김경환 • www.krihs.re.kr

다문화가족의 공간적 분포와 국토·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민성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원

요 약

- ① 2007년 국내체류 외국인이 백만 명이 되고 나서, 불과 6년 만인 2013년 150만 명에 도달
 - 국내체류 외국인 규모의 성장세 못지않게 최근 10년간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건수도 2배 증가
 -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출신국가별로는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② 다문화가족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집중적이며 출신국가별로 차별화됨
 - 다문화가족의 공간분포를 광역시·도 차원에서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음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시·도별 분포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③ 다문화가족이 밀집된 거주지는 출신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공간적 분포 특성을 보임
 - 중국인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높은 밀집거주율을 보임
 -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다문화가족은 대경권과 동남권에 위치한 농촌에 주로 밀집거주지를 형성
 - 필리핀 다문화가족은 충청권, 전라권 등에 밀집거주지를 형성
 - 일본인 다문화가족은 주로 수도권과 인접 지역에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밀집거주율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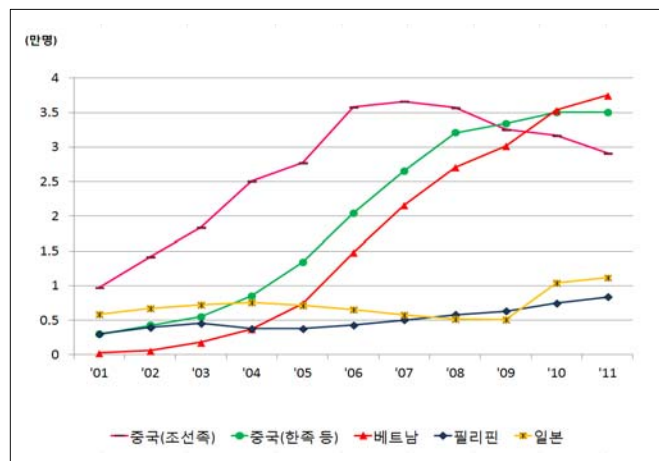
정 책 방 안

- ①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동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 성향을 고려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국토·지역정책과 제도가 필요
- ② 출신국가별로 상이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분포가 향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밀집거주지가 고립화·노후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
- ③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국적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가 공간적으로 인접하거나 중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공간적으로 상호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1.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

-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지 불과 6년 만에 국내체류 외국인 규모가 150만 명을 넘어섰으며,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외국인의 우리나라 정주(定住)도 가속화되고 있음
 - 2007년 8월에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외국인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2013년 3월에는 외국인이 147만 명에 도달
 - 특히,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등록외국인이 2003년 44만 명에서 2013년 3월 94만 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여, 외국인은 잠시 머무르는 유동인구(流動人口)라는 인식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점차 출신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됨으로써 외국인 정주 현상이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은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족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의미
 - 과거 1980년대에는 일부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여성의 국내 입국이 주를 이루었음
 - 1990년대 초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인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진 데 이어,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국가의 다변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수는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신국가별로는 다소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기준으로 연간 국제결혼건수는 1만 4,523건으로 전체 혼인의 4.6%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2만 9,762건으로 늘어나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로 약 2배 상승
 -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인 조선족의 규모는 2007년 정점에 이른 이후 감소
 - 최근 10여 년간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과 베트남인의 가파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필리핀인과 일본인은 지속적이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대조적임

그림 1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수의 추이 (2001~2011)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다문화가족의 시·도별 분포

- 광역시·도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경기도 27.0%, 서울 21.6%, 인천 5.7% 등 수도권 거주자가 54.3%에 이르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특히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수의 증가추세가 38.5%로 두드러짐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시·도 분포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시·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인은 경기와 서울, 인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인은 경기와 경남, 경북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인은 서울과 경기 이외에도 충남, 전북, 전남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본인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 이외에 전남, 충남에 분포하고 있음
 - 출신국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공간분포가 상이한 이유는, 그동안 국내 이민제도가 변화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친밀도, 기존 동일인종 주거지의 이점 등에 따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로 주거입지선택이 집중된 결과임

표 1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시·도 분포(2009)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국 (조선족)	39,998	10,949	1,776	1,216	3,089	754	752	643	11,318	843	1,000	1,653	1,194	1,149	1,306	2,013	345
	(100)	(27.4)	(4.4)	(3)	(7.7)	(1.9)	(1.9)	(1.6)	(28.3)	(2.1)	(2.5)	(4.1)	(3)	(2.9)	(3.3)	(5)	(0.9)
중국 (한족 등)	35,913	9,626	1,606	1,101	2,796	683	681	581	10,241	763	905	1,495	1,081	1,039	1,183	1,821	312
	(100)	(26.8)	(4.5)	(3.1)	(7.8)	(1.9)	(1.9)	(1.6)	(28.5)	(2.1)	(2.5)	(4.2)	(3)	(2.9)	(3.3)	(5.1)	(0.9)
베트남	25,688	2,092	1,455	1,262	907	616	484	955	4,045	904	1,220	2,075	1,534	2,032	2,762	2,978	67
	(100)	(8.1)	(5.7)	(4.9)	(3.5)	(2.4)	(1.9)	(3.7)	(15.7)	(3.5)	(4.7)	(8.1)	(6)	(7.9)	(10.8)	(11.6)	(1.4)
필리핀	8,748	780	372	202	369	289	345	142	1,423	524	424	794	740	1,057	481	610	96
	(100)	(8.9)	(4.3)	(2.3)	(4.2)	(3.3)	(3.9)	(1.6)	(16.3)	(6)	(4.8)	(9.1)	(8.5)	(12.1)	(5.5)	(7)	(2.2)
일본	5,443	997	195	137	191	131	90	49	1,111	284	201	404	342	516	319	397	79
	(100)	(18.3)	(3.6)	(2.5)	(3.5)	(2.4)	(1.7)	(0.9)	(20.4)	(5.2)	(3.7)	(7.4)	(6.3)	(9.5)	(5.9)	(7.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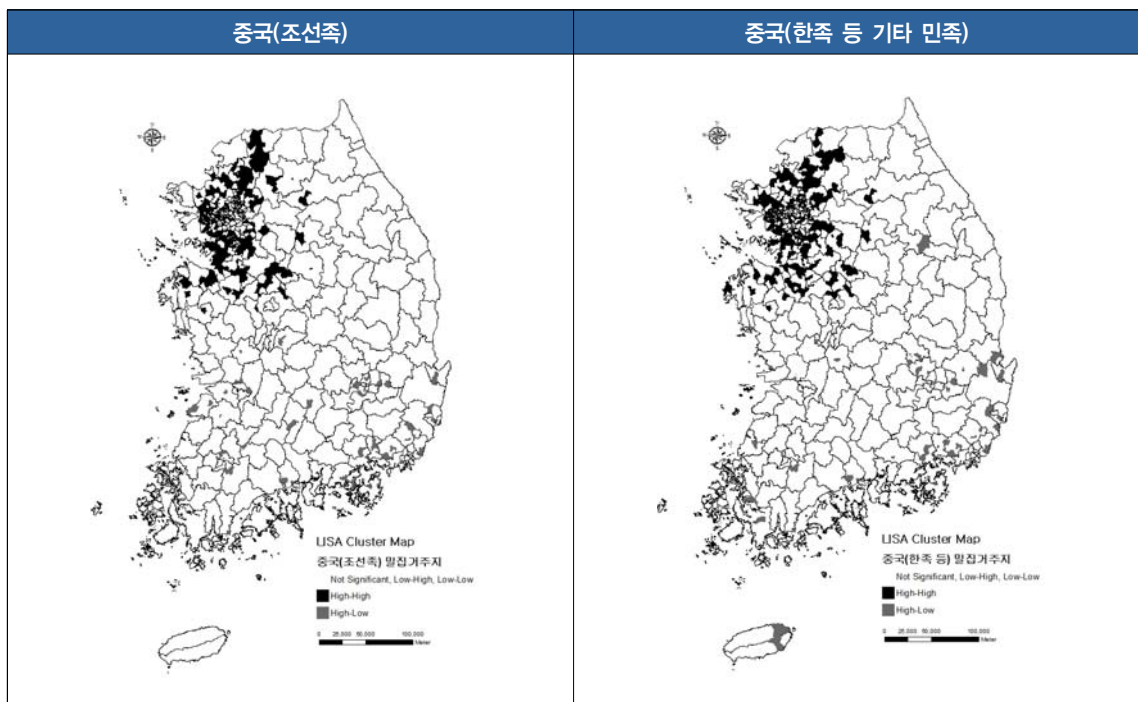
주: 출신국가별로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3.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분포

-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중국 조선족의 밀집거주지는 다른 인종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된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
 - 전체 중국 조선족의 밀집거주지 가운데 약 84.5%가 수도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조선족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한국어 구사능력 및 한국문화와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생활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사무직·판매직에 종사하는 배우자와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집값이 저렴한 서울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 밀집해 있음
- 중국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의 밀집거주지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성향을 보임
 - 전체 밀집거주지 가운데 약 84.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 중구 태평동, 제주시 구좌읍과 제주시 표선면 등 대전과 제주에도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 조선족과 차별화됨

그림 2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적 분포(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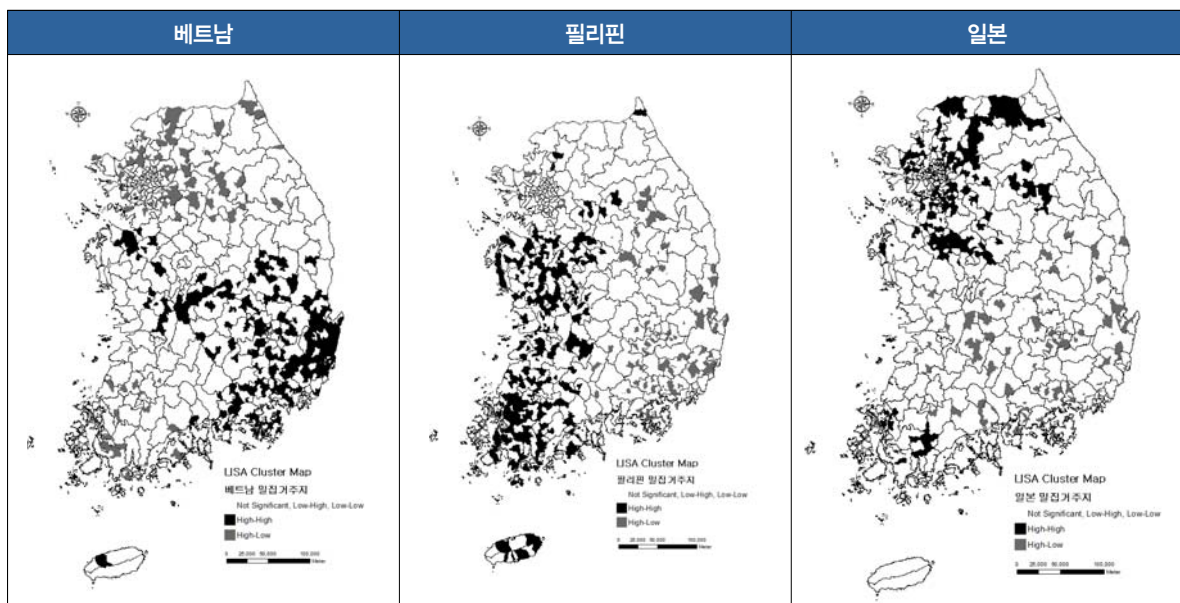


주: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를 읍·면·동 단위에서 매칭하여 총 3,465개의 읍·면·동으로 재구성한 후 LISA분석을 실시함. LISA분석 결과 HH유형은 흑색으로, HL유형은 회색으로 표시함.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 2003년 이후 최근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인의 농촌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베트남인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는 수도권 집중 성향을 보인 중국인 밀집거주지와는 다르게 대경권과 동남권에 절반에 가까운 49.3%가 형성되어 있음
 - 특히, 경상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남성들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의 상당수가 베트남인이라는 점에서 밀집거주지는 동지역보다 읍부나 면부와 같은 농촌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필리핀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는 수도권부터 충청도, 전라도를 거쳐 제주까지 분포하고 있음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룬 필리핀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단체를 통해서 국내에 유입되거나, 중개업체를 거쳐 입국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국내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 비하여 확산된 분포를 보여줌
 - 특히,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필리핀 다문화가족수가 적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에 비해 많은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음
- 일본인의 밀집거주지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강원도 일부지역으로 확산되고 남쪽으로는 충남까지 분포하고 있음
 - 일본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족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국 차원에서 밀집거주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 3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적 분포(베트남, 필리핀, 일본)



주: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를 읍·면·동 단위에서 매칭하여 총 3,465개의 읍·면·동으로 재구성한 후 LISA분석을 실시함. LISA분석 결과 HH유형은 흑색으로, HL유형은 회색으로 표시함.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4. 정책적 시사점

-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동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 성향을 고려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국토·지역정책과 제도가 필요
 -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인프라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미시적인 공간분포를 고려해야 함
 - 특히,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출신국가별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인력과 지원프로그램을 특화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에 형성된 외국인 문화거리와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출신국가별로 상이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분포가 향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밀집거주지가 고립화 또는 노후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동화를 위해 밀집거주지 외부에서도 한국인과 일상적으로 만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함
 -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국내 다문화가족의 실태에 관한 정기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확장
-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국적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가 공간적으로 인접하거나 중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인종 간에 사회적·공간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들이 미국 샐러드볼 사회(salad bowl society)¹⁾와 같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
 -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양호한 일자리와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책임연구원(shmin@krihs.re.kr, 031-380-0154)

박정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연구원(junghopark@krihs.re.kr, 031-380-0387)

1) 샐러드볼 사회란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를 지향하는 사회를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다. 이는 갖가지 채소나 과일들이 본연의 특성을 유지한 채 소스에 버무려져 나오는 샐러드 그릇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독창성들이 유지되고 또 보호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